화정동~상무지구 '수입차 거리' 변신

벤츠 내달 화정역 부근 이전
광주역 인근 전시장 속속 이주
접근성 좋고 유동인구 많아

메르세데스 벤츠를 수입하는 신성모터스는 오는 7월 초 광주도시철도 화정역 인근에 호남 최대 규모의 수입차 전시장(연면적 5187㎡)을 연다.〈왼쪽〉 상무대로에 자리잡은 렉서스 토요타 전시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화정역~상무지구)가 '수입차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역의 수입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광주역 부근에 몰려있던 수입차 브랜드들은 앞다퉈 화정동 일대로 신축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7월 초 광주도시철도 화정역 부근에 연면적 5187㎡,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새 전시장을 신축, 이전해 문을 연다. 서비스센터를 통합, 수입차 전시장 가운데 호남 최대 규모다.

현재 광주역 인근에 전시장이 있는 아우디는 올 10월 이전을 목표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 전시장을 짓고 있다. 앞서 광주역 근처에 전시장이 있던 BMW도 지난해 초 MINI와 함께 2층 규모의 새 전시장을 지어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으로 옮겼다.

푸조는 지난 5일 광주도시철도 농성역 근처에 연면적 1040㎡ 규모의 새 전시장을 열었다. 폭스바겐 근처다. 서비스센터를 통합해 차량 전시·판매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여기에 화정동에서 상무지구를 잇는 상무대로는 이미 크라이슬러와 렉서스,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폭스바겐, 인피니티 등이 얼굴을 맞대며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독일 럭셔리 브랜드 3사가 근처로 이전하면 명실상부한 수입차 거리로 변모하게 된다. 전시장 간 거리는 자동차로 5분여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입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화정동 인근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수입차 구매력이 있는 부유층이 상무지구 등 서구에 많이 거주하는 것도 이유다. 전남북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시장을 찾는 것도 편리하다.

아우디를 판매하는 고진모터스 관계자는 "광주에서 팔리는 독일 수입차는 5년 전에 비해 판매량이 5배나 성장했다"며 "더 큰 전시장을 지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를 수입하는 신성자동차 관계자는 "수입차 전시장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으면 고객들도 차종 비교가 가능하고, 한 전시장을 방문하기 위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며 "전시장을 찾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융자산 10억이상 부자 16만명

전년비 15% ↑… 서울 7만8000명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이 전국적으로 16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 사람은 2012년 16만3000명으로 2011년 14만2000명보다 14.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만8000명으로 전국 '부자'의 48%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비중이 2009년 39.2%에서 2012년 37.6%로 하락해 부자의 지역 쏠림 현상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구 1만2500명, 서초구 9400명, 송파구 7500명, 양천구 4400명, 영등포구·용산구 각각 3300명 순이었다.

부자 증가율은 19.6%를 기록한 울산이 1위를 차지했다. 부자들의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다른 자산보다 높았지만 2011년 58%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이들은 시세차익보다는 정기적 임대소득에 무게를 두는 투자 행태가 두드러지며, 투자용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다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향후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처로 3명 중 1명이 국내 부동산을 꼽았으며, 자산관리를 위한 관심사로도 '부동산 투자정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빵빵~ 소외계층 찾아 달려갑니다"

광주신세계 '희망배달마차' 본격 운영
저소득층 방문 생필품 지원, 나눔봉사

1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정문앞 1층 야외광장에서 열린 '희망배달마차' 차량제막식 후 유신열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빵빵~ 소외계층 서민들 찾아갑니다."

광주신세계 '희망배달마차'가 광주 지역 곳곳을 누빈다.

광주신세계는 13일 광주시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생필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희망배달마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희망배달마차' 사업은 신세계 로고가 표시된 전용 차량이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 계층을 월 10회 이상 찾아가 물품을 지원하고,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과 광주신세계는 광주시 등과 이를 위한 협약을 맺고 1t 냉동탑차를 구매해 기부하는 한편 연간 총 3억여원 상당의 물품과 후원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폭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주신세계는 지역상생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희망배달마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의 40%를 양동시장 등 지역 재래시장에서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희망배달마차' 발대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시 서구 수아비스 웨딩홀 주차장에서 저소득층 150여가구를 대상으로 '나눔장터' 행사를 가졌다.

발대식을 가진 '희망배달마차'는 첫 활동으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안과·치과·한방 진료, 발마사지와 손톱 다듬기 서비스 등의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광주를 찾은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는 "광주지역에서는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희망배달마차 사업이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3자 간 상호협력 사회복지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세계 백화점은 앞으로 광주지역에서 펼쳐지는 희망배달마차에 대한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백화점 여름 세일 28일부터 한달간

주요 백화점이 올해도 여름 정기세일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작년부터 기간을 두 배가량 늘렸다.

13일 광주신세계 등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여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행사의 할인율은 평균 10~30%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보다 앞서 21~27일에는 유명 브랜드가 시즌 오픈 행사를 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올해 여름 바겐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할인율은 17일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8일부터 한달 동안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최근 간판을 바꿔단 NC백화점 광주점도 28일부터 7월4일까지 첫 '럭키세일'에 들어갈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평소 세일을 하지 않는 브랜드도 이번 정기세일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할인 폭과 물량도 작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코스피 1900선 붕괴 연중 최저치

아시아증시 동반 급락

13일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뒷걸음질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27.18p(1.42%) 하락한 1,882.73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작년 11월 19일(1,878.10)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코스피 낙폭이 점차 커졌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486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 2011년 8월 10일 1조2759억원을 순매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매도세다. 외국인은 5거래일 동안 3조2천29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 1900선이 무너지면서 장 초반 상승 전환했던 삼성전자도 약세로 급락세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02% 내린 135만7000원에 거래됐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연중 최저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무제한으로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재가 됐다.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6.35% 폭락 마감했고 대만 가권지수는 2.03% 내린 채 장을 마쳤다. 홍콩 항셍지수(-2.90%), 중국 상하이종합지수(-3.52%)도 급락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부인해야 증시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연체 소송비용 은행·고객 반반 부담

내달부터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은행이 소송을 걸었을 때 관련 비용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된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고객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합의가 돼서 중간에 취하한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사소송법에 재판이 중도에 취하되는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받을 수 있다며 은행의 일방적인 고객 부담 관행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금융사와 고객이 절반씩 소송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